올방학 자녀와 함께

차 마시며 선조숨결 느끼세요

방학이 가까워 오고 있다. 해마다 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길을 나서 보지만, 어디를 가나 인산인해이기는 마찬가지. 이럴 때 선조들의 숨결이 담긴 문화재도 보고 느긋하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찰로 떠나보자.

찻집과 성보박물관이 있는 사찰

▧ 직지사

1995년에 문을 연 직지사 성보박물관은 국보 제208호인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을 비롯해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보물 제319호), 한천사 출토 금동자물쇠와 청동반자(보물 제1141호) 등 16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한다.

성보박물관을 다 구경했다면 발길을 '산중다원'으로 돌려보자. 1994년 문을 연 '산중다원'은 10시간 정도 달여 내는 대추탕이 유명하다. 이밖에 솔잎을 발효시킨 '송차'와 능금나무과에 속하는 명자 열매로 만드는 '명자차'도 인기가 좋다.

▧ 통도사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불교회화를 중심으로 전시실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불교회화 전문 박물관이다. 2층 불교회화실에는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등 600여 점에 달하는 불화가 전시되어 있다. 10월 13일까지는 '제9회 괘불탱 특별전'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조성된 만다라 괘불이 전시된다. 매주 화요일 휴관.

통도사 찻집 '선다원'에서 내놓는 대추차는 참배객들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기에 적당하다.

▧ 대흥사

두륜산 언저리에 있는 대흥사의 서산대사 유물관에는 서산대사가 사용했던 발우와 칠보염주, 신발 등을 비롯해 승군단 표지와 소리나팔, 호패 등이 전시되어 있다.

5년 전 문을 연 찻집 '동다실'은 사찰 경내의 연못인 무영지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자랑하는 차는 초의선사가 직접 명명한 녹야차. 9번 찌고 9번 비벼 말린 우전에 속하는 차다.

이 밖에 쌍계사 성보박물관과 쌍계사 일주문 근처의 '쌍계다원'을 함께 둘러보는 것도 권할만 하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는 8월 15일까지 '조선 찻사발의 미' 특별전이 열린다. 여수령 기자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 찻사발의 미' 특별전을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

성보박물관이 있는 사찰	
평창 월정사	033)332-1817
예산 수덕사	041)337-1969
보은 법주사	043)543-3615
부산 범어사	051)508-6139
경주 기림사	054)744-2292
영주 부석사	054)633-3464
하동 쌍계사	055)883-3190
합천 해인사	055)934-0988
고성 옥천사	055)672-0100
밀양 표충사	055)352-1150
구례 화엄사	061)782-7600
순천 송광사	061)755-0407
해남 대흥사	061)534-5502
영암 도갑사	061)473-5122
순천 선암사	061)754-6062
김제 금산사	063)548-7844

찻집이 있는 사찰	
봉영사 다원	031)572-0330
수종사 삼정헌	031)576-8411
전등사 죽림다원	032)937-7791
석왕사 다인	032)668-0076
낙산사 다례원	033)671-5632
법흥사 다향원	033)374-9171
화암사 란야원	033)633-9998
관음사 다례회	053)474-8228
직지사 산중다원	054)436-6014
쌍계사 쌍계다원	055)884-1373
통도사 선다원	055)382-7182
은하사 신어찻집	055)33709255
대흥사 동다실	061)533-6890
회엄사 반야다원	061)782-0096
실상사 뜰앞의잣나무	063)636-3031
내소사 화례원	063)583-8831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미혼모 된 딸

오늘은 참으로 기구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한 부인이 전화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인의 전화를 받은 저는 전화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부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상담교육을 전문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로만 하는 상담은 우선 자신이 없었고, 아무리 장시간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전화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거절을 듣고 난 부인은 착잡한 듯한 여운을 남기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부인은 한 시간 정도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제게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제게 와서도 선뜻 말을 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저 혼자의 결정보다는 선생님 의견을 듣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부인은 이렇게 말 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부인은 특별히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집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한번도 상이라는 것을 받아 본적이 없을 만큼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출판사에 취직을 해 8년간 편집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행원과 결혼 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했습니다.

환경으로나 재능으로나 한번도 두드러져 본 일이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결혼한 그녀는 결혼과 더불어 평범하지 못한 인생의 역경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였다고 합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평범한 여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 부인은 10년간 남편과 많은 갈등을 겪다가 10대 미혼모가 낳은 여자 아이를 양녀로 입양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감은 물론 친척들과도 일체의 교류를 끊고 몇 년 간 은둔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키운 그들 부부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도 모두 그 아이가 그들 부부의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지내왔다고 합니다.

아이 없이 쓸쓸하게 지내다가 집안에 아이가 있자 부부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아이의 재롱을 지켜보면서 '아, 이런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구나'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부부에게 활력과 행복감을 불어 넣어 준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의 소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친 딸이 계획대로 음대에 들어가면 그랜드 피아노를 사줘야겠다는 생각에 피아노 판매장을 둘러보는 행복도 누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 딸이, 행복과 기쁨의 시원(始原)같은 그 딸이 임신했음을 안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과 연애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딸이 임신했음을 안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의 의미도 비로써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친모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된 딸을 보면서 저는 한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딸이 임신했음을 안 순간 왜 친모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친모와 너무 닮은 운명을 지켜보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온 몸에 힘이 빠지는 무력증에 걸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삼일을 보내고 나니 어떻게 하던

아이가 잘 살도록 돕는것이 지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출판사에 취직을 해 8년간 편집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행원과 결혼 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했습니다.

환경으로나 재능으로나 한번도 두드러져 본 일이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결혼한 그녀는 결혼과 더불어 평범하지 못한 인생의 역경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였다고 합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평범한 여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 부인은 10년간 남편과 많은 갈등을 겪다가 10대 미혼모가 낳은 여자 아이를 양녀로 입양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감은 물론 친척들과도 일체의 교류를 끊고 몇 년 간 은둔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키운 그들 부부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도 모두 그 아이가 그들 부부의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지내왔다고 합니다.

아이 없이 쓸쓸하게 지내다가 집안에 아이가 있자 부부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아이의 재롱을 지켜보면서 '아, 이런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구나'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부부에게 활력과 행복감을 불어 넣어 준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의 소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친 딸이 계획대로 음대에 들어가면 그랜드 피아노를 사줘야겠다는 생각에 피아노 판매장을 둘러보는 행복도 누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 딸이, 행복과 기쁨의 시원(始原)같은 그 딸이 임신했음을 안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과 연애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딸이 임신했음을 안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의 의미도 비로써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친모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된 딸을 보면서 저는 한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딸이 임신했음을 안 순간 왜 친모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친모와 너무 닮은 운명을 지켜보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온 몸에 힘이 빠지는 무력증에 걸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삼일을 보내고 나니 어떻게 하던 고민 속의 아이는 그 아이대로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을 거예요. 때문에 그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헤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위 어른들이 할 몫일 것 같군요."

化緣(www.hwayeon.org) (02)704-3577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풋콩국 옹심이

풋콩 2컵, 오이 1개, 찹쌀가루 1컵, 녹말, 소금 약간

1. 풋콩을 삶아 찬물에 담가 식혔다가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긴다. 손질한 풋콩에 물을 조금 붓고 믹서에 간 후 체에 거른다.
2. 오이는 강판에 갈아 찹쌀가루를 넣어 반죽해 옹심이를 만든다. 옹심이를 녹말에 한 번 굴려준다.
3. 끓는 소금물에 옹심이를 삶아 찬물에 식힌다. 풋콩국에 소금간을 하고 찹쌀 옹심이를 띄워낸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mahamall.co.kr

백련잎차

피 맑게하고 구취, 니코틴 제거 효과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지에서 자란 백련의 잎과 화방을 엄선해 만든 '백련잎차'는 피를 맑게 하고 입안의 냄새와 니코틴 제거에 효과가 있다. 물 5리터에 백련잎차 10g을 넣어 끓인 후 물처럼 마시면 된다. 100g, 1만원. (02)732-1520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흥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